

# 새정치 非盧 ‘분당시나리오’ 군불때기

### 친노수장 문재인 당권장악맨 ‘친노 패권주의’ 폐해론 주장

### 경쟁력 갖춘 대권주자 없어 신당 창당 이어질 가능성 낮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이후 ‘분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노(비 노무현)·비주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론의 핵심은 “친노계가 당권을 쥐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노 수장인 문재인 의원이 당권 경쟁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항마’가 없다는 점에서 친노계를 향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노 중심으로 전당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환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전대를 잘못 치러 특정 계파의 패권주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가 돼 (낮

은) 지지율이 고착될 경우 총선 이전 또는 전대를 전후해 분당의 위기나 정계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조정래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 패권주의” 폐해론을 펴며 “전대를 기점으로 (당내 여론이) ‘통합이나 분당이나’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외의 당권 주자인 정동영 상임고문도 “당이 혁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분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원내외 비주류 인사로 이뤄진 ‘구당구국’ 모임의 정대철 상임고문과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도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당으로는 집권 희망이 없다”며 신당 불가피론을 거론하고 있다.

전대 이후, 야권 분열 시나리오는 호남과 당내 제변에 깔려 있는 ‘반노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친노 진영에서 대표 등 지도부를 장악한 다면 ‘친노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친노계의 당권 장악이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야권에서 신당을 만들려면 분열의 프레임은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명분과 차별화된 가치, 정체성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대선 경쟁력을 갖춘 대권 주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비노 진영에서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의원과 관리원들의 비노 정서가 강하다는 점에서 계급의 법칙이 ‘전당원 경선’으로 가다 지어진다던 당권 경쟁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비노의 공세에 친노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의 협박 정치라는 반응이다. 친노 성향의 모 중진 의원은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부족할 판에 분당론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의 자해 공갈”이라며 “눈앞의 이익에 집착, 내부 분열에 선동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가장 환영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부터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친노와 비노 진영의 충돌은 더욱 격해지면서 새정치연합은 상당한 내홍에 직면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상보육 예산, 법인세율 환원펀 충분”

### 우윤근 원내대표 “사자방 국조, 이명박 증인채택 검토”

무상복지 논쟁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론을 꺼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재벌과 대기업으로 과녁을 쏘며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MB)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무상정책 재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기업들에 특혜와도 같은 세금 감면을 했지만 소비 촉진으로, 투자로, 고용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갑세를 철폐하면 연 5조원의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며 “그러면 2조1천억원 정도의 누리고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저항이 큰 담뱃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부담을 모두 국민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한 걸 원위치지시키고 그대로 (세수가)부족하다면 국민에게 ‘담뱃값, 자동차세를 인상해야 되겠다. 돈이 많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나 국회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세월호 보·배상 상임위 논의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보·배상 문제를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 여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의총서 퇴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11일 당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의원총회 추진을 받는 데 일단 실패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29일 본적 출범 이후 내놓은 각종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보고했다.

혁신위가 보고한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 총 9개 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섰으며 이중 4명가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내년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 체포동의안 개선안 등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백화점식 인기영양형 내용”, 박민식 의원은 “화장발 바꾸기”, “액세서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홍 의원도 “출판기념회 금지도 위원이고, 회의 참석 안했다고 세비 삭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송호근 교수 “4년 중임제 개헌·사회민주화 필요”

(서울대)

### 호남미래포럼 ‘지역주의 극복’ 세미나서 주장

###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 늘려야

지역주의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차별 제거와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주최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역주의는 ‘구조화된 신념’처럼 완강히 지속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점차 계층·세대·이념에 그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려면 ‘사회민주화’에 각별한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그 요체는 차별 제거와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소 방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

를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정당개혁을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최흥석 교수는 “한국 지역주의의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의 실패 탓”이라며 “정당 자체의 내부경쟁 강화, 상향식 공천, 생활형 정치의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는 가운데 지역주의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차관(행정개혁시

민연합 공동대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 타파는 커녕 더욱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보다는 잘 나가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수 CBS라이프 대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깨고, 공존의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사정책·예산배정·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동철 의원 오늘 전남대서 ‘경제선진국’ 특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선진국을 향한 정치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전남대 경영대학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 외에 광주지역 중견기업 CEO들이 함께해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마주했던 난관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도 들려줄 예정이다. 특강과 토크쇼 형식으

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SNS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소통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에 대

(주)·무진기연·(주)오이솔루션·G금강(주) 등 참여기업의 현장견학 및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당해당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요서비스센터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 백현 학개론 임진택 공법 이강열  
중개법 홍덕기 공시법 안규채 세법 임기원

개강 **11월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조강전국목 강의 합니다.  
성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신해방구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입문과 심화를 주는 학원 1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1위

합격을 위한 핵심강의 모의고사  
기조강 11월~12월 7개시 8시~9시  
기조강 11월~12월 8시~9시  
기조강 11월~12월 9시~10시  
매일 1일은 정규 강의를 합니다.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세무학원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본원 361-8111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셋집업 솜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 11. 14(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④ 토지 대전환-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⑤ 3천~1억 소액투자도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